

봄맞이 독서문화행사 풍성

임실군, 4월의 책갈피 독서동아리 홍보주간 등 운영

임실군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 제5회 도서관 주간을 맞이하여 군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도서관, 어제를 담고 오늘을 보고 내일을 짓다'라는 슬로건에 맞게 군립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 홍보, Return To Library(미반납도서 반납독려), 4월의 책갈피 독서동아리 홍보주간 등이 운영된다.

또한 작은도서관에서 책표지 그리며 즐 만들기, 책 읽어주는 엄마(재능기부), 책속책 갈피 등 각 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이벤트를 마련하여 진행된다.

군은 평생교육의 증진과 소통하는 문화공동체 조성을 위해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독서문화를 장려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엔 독서문화 프로그램 18개 강화를 실시해 지역주민 1,700여명이 도서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올해에도 군립도서관은 수요자 중심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 주민의 정보접근 및 이용의 적극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3월에 실시한 책 미술여행, 커피지 도서관, 시낭송교실, 인형극단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주민만족도가 높다.

한편 임실군은 최신시설을 갖춘 임실농촌공공도서관 건립을 본격화하면서 '책 읽는 미래농촌 임실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임실군은 주민편의를 적극 도모하고자 회원증 하나만 있으면 전국 1660여곳의 공공도서관에서 쉽게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책이음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다.

심민 군수는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닌 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많은 주민들이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도서관을 이용해 수준 높은 문화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총력

순창군이 쌀 생산량 공급과잉 문제를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으로 적극 타개할 방침이다.

특히 농가들의 논 타작물 재배 확산을 위해 중앙부처의 관련 지침이 개정되는 등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지침보다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 농가 참여를 독려하고 나선 것.

군은 올해 논 타작물 재배 목표면적을 391ha로 설정하고,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해 총 13억 294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당초 지원대상을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농지에서 2018년 논에 비하여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해 군에서 추진한 '논공 생산 및 유통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지도 포함시켰다.

또 농업인의 신청 부담 등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작목별 지원단가는 1ha(1만㎡)당 조사료 430만원, 콩 등 두류가 325만원으로 작년 대비 각각 30만원, 45만원이 인상되었고, 일반·꽃거름(인산 포함) 작물은 작년과 동

일한 340만원이다. 또 휴경한 경우는 280만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인센티브로 농가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은 논에서 콩을 재배할 경우 ha당 정부 지원금 325만원 외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전량 수매(특등 신실 4,500원/kg, 전년 대비 7.1%인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일품목 30ha 이상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생산·유통 절감을 위한 정비(파종기·수확기·선별기 등) 구입비 4억원(보조 60%, 자담40%)을 지원한다. 지역농협에 콩 파종기·수확기 등 타작물 재배 관련 농기계 구입비 10억원도 지원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간 출입구 분리지원

순창군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을 통해 그간 남녀 출입구가 같이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여성의 편익을 도모한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화장실 출입구가 같이 볼가 설치 등 범죄에 취약하고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여성들을 위해 군이 민간 공중화장실 사업주에게 시설보수에 따

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군은 오는 30일부터 해당 사업 신청자를 접수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순창군이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과 개방화장실로 최소 3년 이상을 운영 중인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 제17호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지원금액은 남녀화장실 분리에 들어가는 공사비의 최대 50%(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대상자 접수 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여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면서 "위생적이고 안전하여 공공성이 큰 사업인 만큼 사업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남원시가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다.

1인승 이하 소형 경우 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고 LPG 신차를 구

입하면 대 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남원시에 2년 이상 등록된 통학차량으로, 2010년 말 이전에 차량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자 또는 공동소유자로, 신청기간은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이다. 지원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차량,

차량(생산연도)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우선 총 7대를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신청포함)나 지방세 체납차량, 국 공립 시설 지역 차량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와 사업안내는 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환경과(063-620-6267)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이 발효마을 축제로 지역 화합과 가치 창출에 나선다.

순창군, 발효마을 축제로 '마을 활력'

1시군 1대표 축제 선정

순창군이 올해 발효마을 축제로 지역 화합과 가치 창출에 나선다. 군은 지난 2월 전북도가 주관한 1시군 1대표 작은축제로 '섬진강 슬로슬로 발효마을 축제'가 선정되어 32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1시군 1대표 작은축제는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북도가 기획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9년 지역축제는 약 884개에 이른다.

이처럼 매년 전국 지자체들이 대표 지역축제를 만들어 몇 억에 이르는 재정적 부담을 안고서도 축제에 치중하고 있어 재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또 점차 늘어나는 축제의 수에 비해 다양성은 퇴색되고, 붐비는 인파 속에 관광객의 피로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이번엔 추진하는 작은 축제가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 관광객의 갈증을 해소할 것으로 군측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순창군이 이번엔 선정한 발효마을 축제는 2015년 24억원에서 2016년 100억원대로 4배 이상 폭발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자연발효식품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 만큼 군이 거는 기대가 크다.

군은 '건강한 슬로푸드, 행복한 삶'을 테마로 섬진강의 자연환경을 융합해 깨끗하고 건강한 발효순창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6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진행될 이번 축제는 적성지내마을과 강경마을 일원에서 개최되며, 자연발효 식초빚기, 수제 맥주 만들기, 연잎머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슬로푸드 시식 시음, 연꽃할머니 이야기길 탐방을 포함한 섬진강 생태 탐방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이도2·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임실군은 임실을 이도2·3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임실을 이도2·3지구는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임실군은 현재 이도2·3지구에 최신 측량기술인 고해상도 정사영상 촬영 무인비행장치 UAV(드론)를 이용한 항공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확정, 조정금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실군은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 토지소유자 동의서제출,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등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오늘 남원시의회 임시회 개최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는 제230회 임시회를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첫날인 9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회기결정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채택한다.

윤지홍 의장은 개회사에서 "시의회 개원 28주년(4.15)을 맞아 초심을 잃지 않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지역발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3일 고리봉 산불의 조기 진화에 애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집행부 제89회 춘향제가 다시 찾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0일부터 1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로 2020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작물 서리피해 주의 당부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는 매년 4~5월이면 찾아오는 이상저온에 의한 서리 피해를 주의해 예기치 않는 손실을 방지하자고 당부했다.

봄이 시작될수록 발생하는 늦서리는 보통 농작물이 발아할 때 또는 개화기에 아직 약한 꽃이나 과실, 어린잎의 세포를 손상시키기에, 어린 세포가 손상되면 생장 상태 탐방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4월에도 병해 후 찾아온 고온 건조 피해로 전국의 과수농가와 함께 오미자, 인삼등 특용작물 농가에 큰 피해를 주어 생산량을 절감시켰으며, 농식품부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개편해 봄 동상해 특약을 주 계약으로 전환하고 적용품목도 확대하여 피해 절감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나상우 소장은 "농가에서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삼 등 특용작물의 출아 전에는 해가림 시설설치 및 서리 방지제 살포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